



겸손; 천국 입장권

어떤 일이든 그 일에는 목적이 있고,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자주 목적과 방법을 혼동할 때가 있다.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십중팔구는 <사랑>이라고 쉽게 대답한다. 하긴 초등학교에서부터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셨다 하고 배웠으니... 분명 성경과 교회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

신 목적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느님의 나라>를 되찾아주시기 위해서라고 가르친다. 하느님의 나라가 목적이요,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사랑, 회개, 기도, 겸손, 나눔 등등이다. 하긴 이런 이론적인 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으랴!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인 오늘 복음과 독서의 내용은, 바로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인 <겸손>에 대한 가르침이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아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마태오 18, 3)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야고보 4, 10) 겸손은 예수님의 가르침임과 동시에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 하느님이시지만 비천한 인간으로 오셨고, 악령으로, 질병으로, 물질적인 부족으로,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들의 친구이셨고, 끝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끌어안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부활과 성부 오른편에 자리하시는 영광을 입으신 것이다.

우리는 자연 안에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 잘 여문 이삭은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가장 강한 힘을 지닌 물은 언제나 아래로 흐르며, 담는 용기에 따라 모습을 달리한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요구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 찾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겸손을 가장한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자. 명예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 중요한 존재라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 권력과 높은 자리에 대한 집착으로 모든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할 것이다.

보르지아(Borgia)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말씀을 깊이 새기자.

“나를 낮추느라, 주님을 배신한 유다 밑에 있으려 했더니, 벌써 주님께서 그의 발치에 계셨다.”



배진구 베드로 신부 | 칠원본당 주임

주일 진례

- 입 당 송**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 본 기 도**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 제 1 독 서** 집회 3,17-18,20,28-29
- 화 답 송** ◎ 하느님, 당신은 가련한 이를 위하여, 은혜로이 집을 마련하셨나이다.
- 제 2 독 서** 히브 12,18-19,22-24ㄱ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
- 복 음** 루카 14,17-14
- 영성체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2019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

피조물과 우리는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9월 1일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2015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제정을 위한 서한에서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믿는 이들을 '생태적 회개'([찬미받으소서], 216-221항)로 초대하시면서 이 기도의 날이 기도, 묵상만이 아니라, 생태적 회개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기를 호소하셨습니다.

공동의 집인 지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발달한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덕으로 많은 이들이 안락하고 편리한 일상생활 안에서 늘어난 수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대한 양의 정보와 지식을 손쉽게 주고받으며,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시장에서 넘치도록 쉽게 구매하며 소비합니다. 그러나 이 무분별한 생산과 소비의 이면에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의 생명과 보금자리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일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예기치 못한 미래에 피조물 전체의 파멸을 재촉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배출한 온실 가스는 지구의 생태 환경을 회복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훼손하였습니다. 극지방의 빙하와 빙산이 사라지거나 만년설이라고 여겼던 곳에 눈 대신 바위가 드러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생태 환경의 급변으로 '기후 난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약자가 출현하였습니다.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도시가 잠기고 있습니다. 대양에 떠 있는 몇몇 섬나라는 아예 국가임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국민들을 다른 나라에 이주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에 호소합니다. 최근 우리는 미세 먼지의 농도를 보도하는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구와 가난한 이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전 지구적인 생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삶의 양식 전체를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지구와 가난한 이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일 것"([찬미받으소서], 49항)을 호소하십니다. 가난한 이들과 파괴된 자연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본디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선 가난한 이들과 지구의 부르짖음을 먼저 경청하는 것이고, 그 부르짖음에 부응하는 하느님의 정의와 공정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기후 위기는 기본적으로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세대의 탐욕과 무책임이 초래한 위기는 미래 세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는 세대 간의 불의입니다. 또 무분별한 욕망으로 지구 자원을 차지하려는 무한 경쟁은 국내에서는 폭력적 갈등을 일으키고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의 위험을 배가하는 지역 간의 불의입니다.

평화를 위한 기후 행동에 동참합시다

UN(국제 연합)은 올해 9월 21일 국제 평화의 날 주제를 '평화를 위한 기후 행동'으로 정하였습니다. 9월 23일에는 '기후 변화 특별 정상 회의'가 개최되고, 9월 20일부터 27일까지는 전 세계인이 함께 참여하는 기후 위기 대규모 캠페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월 21일 시민 사회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 정부와 탄소 다배출 기업 등 책임자들에게 기후 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행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후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지배 체제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석유 산업, 석탄 화력 산업, 핵 산업, 전력 산업 등 지구 생명의 지속을 방해하는 지배 체제에 저항하고 이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행동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제정을 위한 서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인류가 겪고 있는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종께서는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통해서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습시다. 인간은 최악의 것을 자행할 수 있지만, 또한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정신적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여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시 선을 선택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찬미받으소서], 205항)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에 우리도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의 생태 위기를 극복하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의 '공동의 집'에서 살게 하신 하느님의 뜻을 충실하게 헤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 우 일 주교

용원성당 성전기공식



용원성당(주임: 이정근 요한 신부)은 지난 8월 17일 새 성전부지(진해구 청안동 286번지)에서 안명옥 F. 하비에르 주교의 주례로 성전기공식을 가졌다. 기공식에는 안명옥 주교와 박창균 시메온 총대리 신부를 포함한 사제단과 함께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용원성당은 2007년 12월 덕산동성당에서 분리되어 열악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다 새 성전부지를 매입하게 되었고, 이날 기공식을 시작으로 성전건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안 주교는 “용원지역사회 안에 하느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성전건립이 되기”를 당부하였다. 신축하는 용원성당은 대지 3375㎡, 연면적 2078㎡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내년 11월 완공할 예정이다.

후원계좌 : 농협 355-0055-8911-23 (재)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진영성당 동티모르 이주민 미사 ●



| 진영성당(주임: 허철수 미카엘 신부)은 매월 셋째 주일 오후 5시 30분에 이주민을 위한 주일 미사를 거행한다. 귀도 마르티노 신부의 집전 아래 약 40여 명의 동티모르 형제와 본당의 신자들이 미사를 봉헌한다. 이주민 신자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서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 길벗 사제단과 신학생 친선 축구 ●



| 지난 8월 19일 팔용동 어울림운동장에서 교구 길벗 사제단(회장: 김동영 아우구스티노 신부) 신부와 신학생들의 친선 축구경기가 있었다. 이번 경기는 사제단이 승리하였다. 운동 후 사제단과 신학생들은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선후배의 정을 나누었다.

리디아

리디아는 기원전 7세기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었던 왕국 이름이다. 지금의 터키 공화국 서쪽 지역이다. 성경에선 소아시아라 불렸다. 아나톨리아는 희랍어 아나톨레(Anatole)에서 유래했다. 해 뜨는 곳이란 의미다. 리디아에서 금화와 은화가 처음 사용되었다고 한다. 상인들이 역사상 첫 주화를 만든 것이다. 당시 화폐는 금과 은이었고 거래 때면 늘 무게를 달아야 했다. 리디아 상인은 간편 거래를 위해 공인된 주화를 내뱉던 것이다. 주화엔 무게를 보증하는 임금의 각인이 새겨져 있었다. 주화는 희랍인에게 보급되었고 그리스 상업혁명의 촉매가 되었다. 당시 금화 1개는 은화 12개와 가치가 같았다고 한다.

리디아 왕국은 기원전 546년 페르시아에 정복되면서 무너진다. 이후 희랍과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역사에서 서서히 사라졌다. 리디아 병사들은 공사로써 훗날에도 이름을 떨쳤고 상인들 역시 뛰어난 상술로 리디아인의 기질을 알렸다. 그들의 수도 사르디스는 로마 시대 총독이 살던 화려한 도시였다. 묵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 중 하나가 이곳에 있었다.(묵시 3,1)

사도행전 16장에는 리디아라는 여인이 등장한다. 조상이 리디아 왕국 출신이었을 것이다. 당시 리디아 상인은 강력한 조직으로 뭉쳐 있었고 자녀들에게 리디아란 이름을 주곤 했다. 나라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성경의 리디아 역시 상인으로 그리스 북쪽 마케도니아에 살았다. 자색 옷감과 염료를 파는 거상이었다. 당시 자색 염료는 천연재료에서 채취했기에 귀하고 비쌌다. 상류층만이 자색 옷을 입었고 이들을 상대하던 상인들 역시 부자들이었다.

리디아 가족은 바오로 사도의 2차 선교여

행 때 세례받는다.(사도 16,15) 유럽의 첫 신자들이다. 어느 날 바오로는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부르심을 접한 뒤 터키의 트로아스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스로 갔다.(사도 16,11) 지중해 건너 희랍 땅을 밟은 것이다. 네아폴리스 현재지명은 카발라(kavala)로 그리스 해안 도시다. 이후 바오로는 마케도니아 최대 도시 필리포로 갔고 그곳에서 리디아 가족을 만났다. 필리포 공동체는 바오로를 도우며 희랍선교 전초기지가 된다. 중심에는 리디아 가족이 있었다.(사도 16,15)

그녀가 태어난 티아티라(Thyatira)는 염색 공업 중심도시로 묵시록 일곱 교회 중 하나였다.(묵시 2,18) 기원전 3세기 희랍의 셀레우코스 장군은 이곳에 주둔하며 딸을 낳았고 이름을 티아티라로 지었다. 이후 도시 이름이 되자 이방인을 대거 이주시키며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고 한다. 리디아 성녀 축일은 8월 3일이다.

핵의 경고

지난 8월, 환경단체들이 “방사능 불안 도쿄올림픽 반대한다” “방사능 불안 도쿄올림픽,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은폐, 핵발전소 재가동 강행 아베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 단체들은 내년 7월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사능 오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일본 아베 정부가 무리하게 올림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아베 총리는 2020년 하계 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쌓여있는 방사능 오염수만 100만 톤이며 매주 2000~4000톤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8월 14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손 버니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우리 국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은 2022년 여름이면 저장 탱크 용량이 모자라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되면 동해로 유입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계획을 중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모두가 우

려하는 대로 100만 톤이 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버릴 경우 우리의 아름다운 동해도, 전 세계도 그 위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올해는 일본 핵폭탄 투하 74주기를 맞아 핵 없는 세상을 바라는 한일 시민단체가 전 세계에서 모든 핵을 폐기하자고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탄 투하로 2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원폭 2, 3세는 지금도 피폭 후유증으로 죽어가고 있다. 냉전과 강대국의 경쟁은 전 지구적 핵전쟁을 불러왔고 세계적으로도 핵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중국과 러시아의 영토 침공, 개선되지 않는 북미 관계, 잦은 북의 미사일 발사, 경제보복을 앞세운 일본의 신군국주의 부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가짜 평화 논리 등이 한반도 평화를 또한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원폭 투하와 세 번의 핵발전소 참사(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로 인간이 핵을 통제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이미 2013년 주요 회의에서는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핵의 위험성과 비윤리성을 지적한 바 있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인 오늘 “창조물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인간의 평화도 없다”는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독교칼럼

김현주 올리아나
가톨릭여성회관 관장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내 인생의 이야기

〈고향은 경북 옥산 첩첩산중 골짜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가스는 남의 집에 가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뭐 할라고! 일단 잘하면 되지.” 하고 학교에 못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죽으나 사나 쑥 나물 하러 산에 가서 나물을 해가지고 오면 그 나물을 가지고 밥을 지어서 먹었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한울학교가 서울대학교보다 더 훌륭합니다. 내가 한평생 까막눈으로 살다가 내 손으로 글을 쓰고 배우고 하니까요. 이제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고 온 세상이 정말로 아름답고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꿈은 좀 더 배워서 내 이야기를 쓰는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이점열〉

- 가난했던 시절 우리 어르신들이 그야말로 피눈물을 삼키며 고생하신 덕분에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저는 돈이 없어 밥을 굶은 적이 없습니다. 시대를 잘 타고나서 학교는 남들만큼 다녔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의 기도와 주님 이끄심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제가 되었습니다.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 제 삶을 돌아보면 은총으로 살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고 살아가도 허영심에 늘 배가 고프고, 이것저것 더 가지고 싶은 재물에 대한 욕심에 침을 꼴딱대며 살아갑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시면서도 시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잃지 않은 이점열 할머니를 응원합니다. 나이를 잊고 새로운 삶과 꿈에 도전하는 모든 어르신을 응원합니다.

별나라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별에서 왔다고 한다. 지구를 지키라는 특수 명령을 받아 그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활기차다. 2350년에 지구가 멸망하지만, 모두를 안전하게 별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 특수 요원들이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으며 나를 제1 보좌관으로 임명한다고도 한다.

이렇게 나의 아버지는 공상 소설을 마음으로 쓰면서 노년을 아주 즐겁게 지냈다. 당신이 세계 대통령이라고 늘 웃으며 초 긍정적이었다. 어머니가 만든 반찬은 최고급 요리이며 내가 사다 드리는 과자는 보약이라고 좋아하였다. 아버지를 보살피기 위해 날마다 집으로 오는 요양보호사에겐 방석에 앉으라고 권하고 ‘대단합니다.’ 하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니 그분 또한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고 기뻐하였다.

언제나 즐거운 마음 탓에 병원 입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건강한 아버지가 감기로 몸져 누웠다. 병원에 가지 않으려는 아버지에게 떼를 써서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 의료원 의사도 딱히 질병은 없다고 하여 영양제라도 처방해달라고 하였으나 주사바늘을 찌르는 순간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실핏줄이 터지면서 파랗게 멍이 들었다. 주사까지 거부반응을 일으켜 집으로 모시고 왔다. 이야기를 즐기던 아버지는 말문을 닫고 침묵에 잠겼다. 날마다 똑같이 반복

홍예성 바울라 • 수필가

영혼의 트랙
교구 가톨릭 문인회

하는 소설을 듣느라 힘들었던 어머니는 당장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립다고 하였다. 아버지를 위해 선종 기도를 드리고 ‘아버지가 계시던 별나라로 가면 지구를 지키느라 수고했다고 환영의 박수를 받을 겁니다.’라고 하였더니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렇지만 그 별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라며 주님의 기도를 드렸다. 조금이라도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는 아버지는 앓는 소리 한번 내지 않고 평온하게 열흘간 누워 지내다 거룩하다며 좋아하던 본당 신부님께 병자성사를 받은 지 3일 만에 분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천주의 모친’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서 성모송을 즐겨 기도하였고 묵주기도 하는 어머니를 ‘성모님’이라 불렀다. 이웃에게 쓴소리 한번 안 한 아버지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성당에서 기도하러 오는 교우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진주 망경성당 선종봉사회에서 아버지 장례미사, 입관, 출관, 하관 예식 동영상에 네이버에 올려 당신이 말하던 소설처럼 첫 기일인 오늘도 아버지 이름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성모님! 당신을 무척이나 사랑하였던 아버지 사도 요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하느님께 전구하여 주소세!

 교구장 동정

일시: 9월 3일(화) 16:00
장소: 파티마병원
내용: 파티마병원 창립 50주년 기념미사

일시: 9월 4일(수) 11:00
장소: CBCK
내용: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2차 청년교리 연수

일시: 9월 7일(토)13:30~8일(주일)14:00
장소: 가르멜 기도의 집(진동 가르멜수도회)
주제: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이다.'- 가톨릭 교리서 1편 2부 2장
참가비: 1인당 5만 원
준비물: 필기구(노트),
미사 준비(봉헌금, 단정한 복장),
묵주, 세면도구(수건), 텀블러
신청마감: 9월 1일(주일)
문의: 010·4706·9736

 제30차 청년 성령세미나

일시: 9월 20일(금)14:00~22일(주일)16: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청년
참가비: 9만 원 (경남 593-22-0355398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신청: 9월 11일(수)참가비 입금순 40명)
문의: 청년성령쇄신봉사회 myhs.or.kr
010·9113·7062, 010·8864·7067
파견미사 초대 9월 22일(주일) 14:00

교구/본당

신임 소공동체장 연수

일시: 9월 2일(화) 10:00
장소: 교구청
문의: 사목국 055·249·7021~3

2019년 전례와 꽃예술학교 수강생 모집

기간: 9월 2일(월)~12월 9일(월) 15주
장소: 팔용동성당
기초과정: 매주(월) 10:00
대상: 관심있는 누구나(나이, 학력, 종교 무)
수강료: 20만 원(재료비 별도)

봉사자과정: 매주(월) 13:30

대상: 기초과정 수료자, 민간자격증 고급 이상
소지, 본당 제대꽃 봉사 5년 이상 중 1가
지 해당
수강료: 30만 원(재료비 별도)

최고과정: 매주(월) 10:00

대상: 봉사자과정 수료자, 본당 제대꽃 봉사 5
년 이상으로 민간자격증 사범 2급 이상
취득자
수강료: 35만 원(재료비 별도)

심화과정: 매주(월) 13:30

대상: 최고과정 수료자
수강료: 40만 원(재료비 별도)
문의: 성소국 055·249·7061
담당자 010·9088·4864

신앙대학

일시: 9월 7일(토)~8일(주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사목국 055·249·7021~3

예비신학생, 여성소자 모임

일시: 9월 8일(주일) 10:30
장소: 교구청
문의: 성소국 055·249·7061

교구성경공부- 예언서

일시: 9월 10일(화) 10: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강사: 요안나 수녀
문의: 성경부 055·249·7025~6

위원회/기관/단체

정의평화위원회 사회교리

일시: 9월 9일(월) 19:30
장소: 마산 상남동성당
주제: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강사: 김태형 변호사
문의: 정의평화위원회 055·261·8201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9월 기도모임

일시: 9월 16일(월)
성체조배 11:00~11:50
특 강 13:00~13:50(이청준 신부)
미 사 14:00

대상: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봉사자 및 전신자
장소: 상평동성당
문의: 010·3903·8234

마산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식당봉사, 방과후수업(요리, 방송댄스, 볼링)
기간: 3월부터 12월
장소: 마산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사회
문의: 055·247·5195~7

마산가톨릭교육관 직원채용공고

분야: 주방 1명(교육관 내 거주 가능자)
제출: 이력서, 교적사본(신자),
본당 신부 추천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감: 9월 22일(주일) 17:00까지
방문, 우편, e-mail(우편접수는
마감일 이내 도착 분까지)
면접: 추후 개별 통보

문의: 055·221·1891~2
cecomasan@gmail.com



라파엘여행사

- ◆ 10/4,11/4,11/2 **이스라엘,요르단 10일** (289만원)
- ◆ 10/7, 11/7 **아테리일주 9일** (279만원)
- ◆ 10/7 **산티아고 13일** (395만원)
- ◆ 10/14,11/15 **다낭성모발현지 5일** (12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대학병원급 장비보유
백내장·녹내장 전문병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장동로 3 (경남빌딩 2층)
진영소방서 맞은편 055.724.0988
원장 임영진 (미카엘)

길모퉁이산티아고순례단모집

길순례단 | 9/6~9/15 (10일, 298만원)
모퉁이순례단 | 11/1~11/10 (10일, 298만원)
(의료진/길모퉁이서포터즈동행, 일정외 출발시 별도문의)
가톨릭 이안문화사업단 **길2동행**
www.gil1004.com
055.264.4628 / 010.9876.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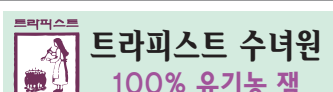


성악 스튜디오
T.070. 4384. 8730

blog.naver.com/franz32
조 현 울 프란체스코
마산회원구 양덕1동 주민센터 맞은편 2층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월~금 09:00~17:00
토 09:00~15: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055.293.5605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010-2652-0706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봉사자 모집

일시: 매월 첫주(월) 10:00~14:00
장소: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문의: 055·237·6487

수도회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 아래 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접수가능

일반: 9월 7일~9일, 9월 16일~18일
10월 17일~19일

제주전체성지순례(추지도포함): 9월 21일~24일
9월 30일~10월 3일
10월 6일~9일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성경 거룩한 독서 피정

일시: 9월 21일~22일, 9월 28일~29일,
10월 12일~13일, 10월 19일~20일,
10월 26일~27일, 11월 16일~17일,
11월 23일~24일 12월 14일~15일,
12월 21일~22일 (토 14:00~주일 14:00)
장소: 고성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피정비: 7만5천원
피정동반 및 강의: 유덕현 야고보 아빠스,
최재용 세바스티아노 원장
신청: 010·2816·1986

기 타

부산가톨릭대학교 2020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 9월 6일(금) 09:00~10일(화) 18:00
선발인원: 간호학과 외 17개 학과 868명
전형방법: 학생부교과전형 3개, 학생부종합전형 5개
문의: 권혁민(루카) 입학사정관 051·510·0705

꽃동네대학교 2020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보건·복지·상담심리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대학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사립대학 사회책임지수 총복 1위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내 집 같은 기숙사 신입생 100% 입사 가능
모집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간호학과
원서접수: 9월 6일(금)~10일(화)
문의: 043·270·0100

콜롬반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해와선교)

일시: 9월 8일(주일) 14:00~17:00
대상: 만23세~만38세, 남·여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문의: 02·929·4841 www.columban.or.kr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길, 미사, 기도, 강의

일시: 9월 18일~20일, 9월 22일~25일
9월 27일~29일, 10월 3일~6일
10월 9일~11일, 10월 14일~17일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제주 성 이시돌 064·796·9181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solace@cathms.or.kr
문의: 055·249·7002~3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samok1@cathms.or.kr
문의: 사목국 055·242·6776



진해지역 성령기도회 1일 대피정

일시: 9월 9일(월)10:00~17:30
장소: 중앙동성당
강사: 김현남 메히틸다 수녀(쌍가소비녀수도회)
주제: 행복 여행
파견미사: 16:30분(이동진 안셀모 신부 주례)
문의: 010·7566·9441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부부나들이 피정

일시: 10월 19일(토) 14:00~20일(주일) 17:00
강사: 홍성남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이성
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장소: 아론의 집
회비: 1부부 15만 원(비신자, 냉담자 환영)
신청 131-020-141399 천주교서울대교구
준비: 미사, 수건, 치약, 개인컵, 편한 신발
문의: 010·4204·1522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주례	문의
교구	9월 2일(월) 19:00	월남동성당	아는 바를 사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유영봉 야고보 몬시뇰	유영봉 야고보 몬시뇰	010·5072·5612
창원지구	9월 2일(월) 19:00	반송성당	성모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	이상기(가브리엘, 서울교구)	안찬모 신부(이나시오, 삼위일체수도회)	010·9421·3377
청년	매주(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미사, 셋째주: 치유기도)		010·6667·7809

SM 수맥홍(홍)집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1588-5335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품격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table border="1"> <tr> <td>10월 26일 KOREAN AIR</td> <td>이탈리아, 이스라엘 순례</td> <td>12월 449 만원</td> </tr> <tr> <td>10월 28일 KOREAN AIR</td> <td>터키, 그리스 순례</td> <td>13월 399 만원</td> </tr> <tr> <td>11월 11일 AEROMEXICO</td> <td>과달루페와 중남미 순례</td> <td>19월</td> </tr> </table> ▶ 출발 확정·전일정 공동경비포함 ◀ 분도여행사 02.852.8525	10월 26일 KOREAN AIR	이탈리아, 이스라엘 순례	12월 449 만원	10월 28일 KOREAN AIR	터키, 그리스 순례	13월 399 만원	11월 11일 AEROMEXICO	과달루페와 중남미 순례	19월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철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10월 26일 KOREAN AIR	이탈리아, 이스라엘 순례	12월 449 만원										
10월 28일 KOREAN AIR	터키, 그리스 순례	13월 399 만원										
11월 11일 AEROMEXICO	과달루페와 중남미 순례	19월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함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055.391.1205											

천주교 마산교구청 신청사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와 경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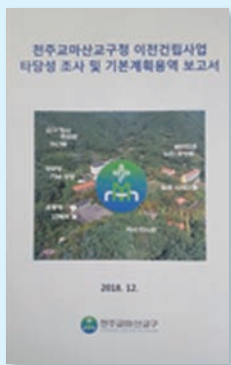
지난해 공문(천마교 2018-105, 2018.5.11.) 「교구청 이전 추진위원회 임명」(위원장: 총대리 박창균 신부)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교구청사 이전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10여 차례 전체회의와 각 분과별 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음에도 교구민들에게 진행사항을 알려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신청사 설계공모 응모작을 심사하여 발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15개월 동안의 진행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8

- 5월 11일 제1차 이전추진위 전체회의
- 6월 20일 신청사 이전을 준비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팀 구성 용역의뢰
- 11월 13일 사제총회에 진행사항 보고 및 제7차 전체회의
- 11월 29일 제8차 전체회의,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과 설계공모 요강에 따른 수정, 보완작업
-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의뢰 결과 「천주교마산교구청 이전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보고서」 발간

2019



- 1월 28일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위촉장 수여
(외부전문위원 4명- 강호철 경남과기대교수, 고성룡 경상대 교수, 김광현 서울대 명예교수, 이병연 충북대 교수, 내부심사위원 5명- 박창균 신부, 강철현 신부, 최재상 신부, 한일문 회장, 신삼호 건축사)
- 3월 15일 제10차 전체회의, 설계공모 지침서(안) 논의
- 3월 25일 신청사 건축설계경기 공고(천마교 공고 제2019-2호)하여 이후 11개 업체 신청하였으며, 1차 5개 업체를 선정하여 현장 설명회 개최
- 4월 23일 신청사 식생현황도 조사 완료
- 8월 9일 설계공모 응모 마감하여 3곳 업체 참여, 경영위치 건축사사무소, UDA 건축사사무소, (주)솔토지빈 건축사사무소에서 응모작품을 제출
- 8월 17일 응모작 참가업체 설명회와 심사 후 결과 발표, 당선작 (주)솔토지빈 건축사사무소
- 8월 26일 당선작 공고(천마교 공고 제2019-3호)

앞으로 교구청 이전추진위원회에서는 당선작을 2019년 9월 1일부터 2주동안 현교구청 1층에 전시할 것입니다. 동시에 「기본계획안」을 보완·정리하고 계속 수정하여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교구청사가 지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구청 이전추진위원회 위원장
박창균 신부 드림